

#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 무엇을 하시는가

갈라디아서 5:16-18

정윤돈 목사님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다 해 나가신다. 우리는 할 일이 없을 정도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어느 시점에는 전도도, 공부도, 모든 것이 누림이 된다. 그때까지는,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된다. 사실은 전부 성령께서 하신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것을 우리가 보느냐 못 보느냐, 조금 보느냐 많이 보느냐, 혼자 보느냐 함께 보느냐 하는 차이 뿐이다.

### 서론

(1) 옴과 그 친구들을 보라. 성령의 인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성령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잘 알려주는 인물들이다. 옴이 영적인 흐름을 탄 사람이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친족들이었고, 홍수에 대해서 듣고 알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틀린 신앙이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받는다라는 그런 수준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받은 옴은 그것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 알게 되었다. 정말 성령인도받는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을 깨닫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문제는, 그 고생을 하면서도 못 깨닫는다는 것이다. 깨닫기만 해도 된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개선이 안 된다.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기만 해도 변화될 수 있다. 완전한 것은 흠이 없는 것이다. 온전한 것은, 완전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이다. 역동적인 것이다. 온전함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문제를 주시기도 한다. 목적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다. 이 수준 낮은 우리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정도가 되는 것이다. 옴을 능가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실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 유치한 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2) 성령인도를 제대로 받으려면, 영접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된다. 지난주에 열두 가지만 이야기했다. 그런 모든 변화가 나에게도 일어나도록 기도하라. 아주 유치한 것이라도 체험해 보아야 한다. 내가 변화되던지, 내가 복음을 전한 상대방이 변화되던지, 우리가 이것을 체험해 보아야만 한다.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 재미로 예수를 믿는 것 아닌가?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 증인이 되면 하나님이 새신자를

성장시켜 나가신다. 그래서 이런 응답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모델로 보고 따라가야 한다.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 교회 안에도 천국 같은 대화의 광장이 있고, 지옥 같은 대화의 광장이 있다. (웃음)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야 한다. 보고 내 것을 만들어야 한다. 성령 인도를 정말 받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우리의 생각은 달라야 한다. 남은 자 한 사람,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한국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왜 원망할 것인가. 여러분, 세계를 다녀 보라. 한국처럼 안전하고 좋은 나라가 없다. 인터넷도 빠르고 (웃음) 부정부패 좀 해도 적당히 넘어갈 수 있고 말이다. (웃음) 세금 좀 덜 내도 은혜롭게 넘어간다. 선진국이었던 나라 난다. 우리는 대부분 탈세하고 사신다. (웃음)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성령인도를 받으라는 것이다.

### 1.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성령인도를 받을 수 있다. 종교생활을 하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된다. 방언 잘 해야 구원받고 성령인도를 받는다고 착각한다. 꿈 꾸는 것이 성령인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비난받는 것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아전인수를 하고, 비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냉철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뜨거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한다. 계속 질문해야 한다. 그것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다.

(1) 창조주의 일을 하셨다. 그냥 하신 게 아니다.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인격과 이성과 사랑을 주셔서 아름답게 만드셨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모른다.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되, 무질서한 분이 아니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2) 타락한 인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남을 체험해야 한다. 어떤 성도님은 교회에 나왔는데 부인 때문에 끌려왔다. 와서 계속 잤는데,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되는 데만 5년이 걸렸다. 엄청난 거듭남이다. (웃음) 내 속에 하나님이 인을 치셔서 내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3)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우리 아들이 진짜 믿음 없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깜짝 놀랐다. 자전거 타고 나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것이다. 걱정이 되는 것이다. 얼마 전에 성내천에서 자전거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여자분이 즉사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불려가셨구나. 어째서 나에게 이런 시련이. 그래도 감사해야지.' (웃음) 그래

도 안 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119에 전화를 하려고 하는 참이었다.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서 죽은 중학생 꼬마 없느냐고. (웃음) 그렇게 물어보려고 하는 순간 초인종이 울리고 아들이 들어왔다. 말 안 하려다가 못 참고 이 말을 했더니, 아들이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렇게 죽을 수가 없지.” (웃음) 내가 깜짝 놀랐다. ‘우리 아들이 믿음이 있구나. 항상 저랬으면 좋겠다. (웃음) 내 생각보다는 믿음이 좋구나.’ (웃음) 그게 성령의 역사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4) 내 안에 인을 치셨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이 증거가 있다. 한 번 인치는 것은 바꿀 수 없다.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5) 그래서 보증을 주시는 것이다. 중요한 결단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결단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권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질문해 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를 아시겠는가 모르시겠는가. 다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믿으면 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장이 있다. 그래서 고집 피울 필요가 없고, 양보 못 할 것도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너무 많다.

(6) 성령께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다. 불신자들은 교회 오는 시간에 등산 다니고 놀러 다니다가 시간 낭비, 돈 낭비 얼마나 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다. 친구를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야,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훨씬 좋다. 부럽다. 나는 일요일에 뭘 좀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들어서 이제 못 하겠다.” “그러면 너도 교회 다니면 되잖아?” “야, 교회를 아무나 가냐.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설교는 혼자 다 하고 자빠졌다. (웃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7)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둘, 도올 김용옥 강의를 들어보니까, 정말 똑똑하다. 그런데 전혀 못 깨닫고 있다. 요한복음을 원어로 강의하기에 들어봤는데, 얼마나 원어를 유창하게 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그것을 얼마나 유창하게 다 틀리는지 모른다. (웃음) 전부 엉터리로 알고 있었다. 다른 분야 지식도 다 저렇겠구나 싶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요일2:20-27에, 기름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다.

(8) 또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 전도, 헌금, 훈련, 나눔, 돕고 사랑하는 것, 모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교회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한다. 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9) 성령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우리의 연약함도 도우신다고 했다. 헬리어 원어로 권능, 이 힘을 두나미스라고 한다. 성취할 수 있는 힘, 전투력, 정치력을 가리키는 단어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 영적인 힘, 군사력, 정치력, 인간관계의 힘, 지력, 모든 힘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 2.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사실은 할 일이 없지만, 그래도 할 일이 있다.

(1) 거짓말이라도, 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바치는 것이다. 물론 진실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내 생을 드리도록, 하나님과 1:1로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때 역사가 달라진다.

(2)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내 고집과 자랑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고백하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라. 하나님은 새것으로 만드실 것이다(고후 5:17). 이 응답을 체험해야 한다. 우리 전도사님 중에 마약 전과 20범이었던 분이 있다. 지금은 군부대에 마약 환자 치유사역을 들어간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치유된 것을 인정받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다.

(3)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할 것을 약속하셨다. 있어 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우리는 자격도 없는데,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외면할 때도 주님은, ‘원래 나는 포기란 없는 체질이다’ 하면서 함께 계신다.

## 결론

이 성령인도 받는 체질이 되기 위해서 할 것이 있다.

(1)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한다. 전도의 관점에서 말씀을 봐야 한다. 사단의 역사를 보고,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

(2)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역하는 분들은 24시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찾아라. 공부하는 레몬트들도 24시 기도하며 공부하라. 24시 해야 성공할 수 있다. 24시의 응답을 받아서 25시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란다.

(3)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면,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복음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리스도, 이 복음이 풍성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로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모화가 들어있다. 이것을 찾아내어야 한다. 다른 영성, 다른 깊이가 있다. 그런 응답을 누리야 한다.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믿음이다. 제일 좋은 신앙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것이라고 믿는 신앙이다.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이 축복과 확신을 누리시기 바란다.